

공주시 평생교육 학습자,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283만 원 기탁

✎ 길상훈 기자 | Ⓞ 승인 2024.06.12 09:57

학습활동 통해 발생한 판매수익금 꾸준히 기부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가 11일 공주시 평생교육 학습자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283만 원을 공주시에 기탁했다.[사진=공주시]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가 지난 11일 공주시 평생교육 학습자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283만 원을 공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2023년 평생학습에 참여한 학습자와 지도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생학습 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을 기부하거나 전시, 판매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학습활동을 통해 발생한 판매수익금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평생교육 학습자 일동은 “경기 침체로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역의 인재들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원철 시장은 “지역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는 올 상반기 장학생 550명을 선발해 총 3억85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 한해 장학사업으로 9개 분야 6억7000만 원을 편성해 지역인재와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길상훈 기자 kksh123@korea.com